

# 한국 영아들과 미국 영아들의 애착 분포와 행동특성 비교

The Distributions of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Attachment Behaviors of Korean Infants and American Infants

진미경(Mi Kyoung Jin)<sup>1)</sup>

유미숙(Mee Sook Yoo)<sup>2)</sup>

## ABSTRACT

To understand further the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attachment classifications assigned to 12-15 month old infant raised in Korea(N=85) and the U.S.(N=104), detailed analyses of maternal and infant behavior during the Strange Situation was undertaken. Indices of infants' attachment behavior with their mothers and distress during separations were rated. The percentage of Korean infants classified as secure versus insecure mirrored the global distribution, however, fewer Korean babies were classified as avoidant, As predicted, secure Korean babies were less likely than secure U.S. babies to approach their mothers, maintain contact or show resistant behavior and more often displayed distress during the second separation from their mother. Resistant Korean babies, however,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from resistant U.S. babies with respect to their attachment behavior but more often displayed distress when left with a stranger.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with respect to cultural differences in caregiving.

**Key Words** : 애착유형(attachment classification), 애착행동(attachment behaviors), 비교문화 (Cross-Culture).

## I. 서론

Bowlby의 애착이론이 등장한 이래 그의 이론은 애착 연구에 새로운 이론적 개념구조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발달이론가들에게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애착조직화에서의 개인차, 애착과 관련한 개인의 내적 표상 즉 내적 실행모델에서의 개인차로 재개념화한 것이다. Bowlby(1969)에 의하면, 영아는 생애 초기에 맺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 속에서 양

\* 본 논문의 자료는 2005년도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박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The Hogg Foundation for Mental Health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sup>1)</sup>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sup>2)</sup>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 Kyoung Jin, Department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40-742, Korea E-mail : childcoun@hanmail.net

육자의 가용성(availability)과 반응성(responsiveness)을 기초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조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양육자와의 내적 실행모델은 관계(relationship)에 대한 개인의 해석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영아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개념을 발달시켜 또래나 성인들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Zeanah & Barton, 1989).

Bowlby가 애착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다면, Ainsworth는 애착 측정의 방법론적 측면에 기여함으로써 애착 연구의 활기를 띠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insworth(1978)에 의해 애착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는 '낮선 상황실험'이 개발된 이후로 애착연구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연구가 실행되어짐에 따라, 애착 연구자들은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애착 측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실행되어진 낮선 상황 실험 연구들은 애착 유형 분포에 있어 차이를 보여 왔다(Lamb, Thomson, Gardner, & Charnov, 1985; Takahashi, 1986; Van IJzendoorn & Kroonenberg, 1988; Zevalkink, Riksen-Walraven, Van Lieshout, 1999). 안정애착 vs. 불안정 애착의 분포에 있어서는 비슷한 비율의 분포를 보였지만, 불안정 애착 유형(회피유형 vs. 저항애착)의 분포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Sagi & Lewkowicz, 1987; Van IJzendoorn & Kroonenberg, 1988). 구체적으로 독일의 Bielefeld 영아들은 불안정애착 유형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회피 유형분포(48%)를 보였고 (Grossmann, Grossmann, Spangler, Suess, & Unzner, 1985), 이스라엘(32%), 일본(32%), 인도네시아(34.1%) 같은 나라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저항애착 분포를 보였다(Takahashi,

1986; Van IJzendoorn & Kroonenberg, 1988; Zevalkink et al., 1999). 대다수의 연구들이 서양 문화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에 비교해 동양 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가 보고되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문화권의 영아와 비교되어질 때, 동양 문화권에서 보고되어진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분포의 회피 애착 유형을, 높은 비율 분포의 저항애착 유형을 보고해 왔다(Takahashi, 1986; Zevalkink et al., 1999).

이러한 분포들에 있어 차이는 각 문화권마다 다른 양육 가치나 태도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어왔다. Grossmann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회피 유형 분포를 아동의 독립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어려서부터 부모와의 분리를 비교적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인하여, 엄마와의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스라엘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저항애착 유형 분포는 Kibbutz의 집단 잠자리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어 졌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아이의 욕구에 시기적절하게 반응 할 수 있는 민감한 양육이 행해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동양 문화권에서 보여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저항애착 영아의 분포는, 유아시기에 부모와의 분리 상황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양육문화에 근거하여, 낮선 상황 실험 절차가 동양문화권의 영아에게 보다 스트레스 상황일 수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영아들이 저항애착으로 분류되게끔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Sagi & Lewkowicz, 1987).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도시 가정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 연구(Van IJzendoorn & Sagi, 1999)는 80%의 영아가 안정애착으로 분류되어 글로벌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비취업모 가정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독일 연구 역시 글로벌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Sroufe, 1985).

또한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저항애착 유형의 분포는 절차상의 문제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적으로, Takahashi(1986)는 그녀의 연구에서 낯선이와 함께 있는 분리 에피소드(첫 번째 분리 에피소드)동안 아이가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음에도, 분리 에피소드 시간을 줄이지 않았었고, 이로 인해 아이가 혼자 있게 되는 분리 에피소드(두 번째 분리 에피소드)를 실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저항애착으로 분류되어지는 영아의 비율이 많아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상 Ainsworth(1978)는 실험절차와 관련하여 아이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분리 시간을 줄이는 것을 논의했고, 표준화된 실험절차에서는 실제로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분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Carlson & Sroufe, 1993). 비교적 최근에 실행되어진 일본의 연구결과가 글로벌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보임으로써, 이는 절차상 문제로 인한 저항애착 유형의 높은 비율의 문제점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최근 연구동향은 각 문화권에서 보여지는 다른 분포들이 문화 간 차이라기 보다는 각 문화권내에서 보여지는 연구대상의 특성 간의 차이로 해석되어지고 있다(Van IJzendoorn & Kroonenberg, 1988).

한편, 국내에서도 그간 많은 영아애착 연구들이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하여 애착유형의 분포를 보여주고, 애착 안정성과 관련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나유미, 1996; 박용임, 1994; 이영환, 1993; 유효순, 1985; 장미자, 1998).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또한 몇몇 연구들은 예비 연구를 통하여, 아이가 혼자 있게 되는 에피소드를 포함시키

지 않거나 각각의 에피소드를 2분으로 단축시키는 등 한국 실정에 맞는 절차상 수정을 하고자 하였다. 낯선 상황 실험의 가설은 영아의 애착체계를 경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시켜 영아가 보이는 애착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분리 에피소드를 단축할 수는 있으나, 에피소드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 이 실험에서 의도하는 정도로 애착 체계가 활성화 되었는지 문제가 제기되어 질 수 있다. 더욱이 비조직화 애착 유형 측정 시 재결합 에피소드만을 통해 측정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는 모든 에피소드(1, 2, 3, 5, 8)가 관찰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위의 에피소드들의 시간단축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하여 한국 영아 애착유형의 분포를 알아보고, 애착 유형별로 어떤 행동특성들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낯선 상황의 표준화된 절차를 적용할 때, 한국 영아들은 어떠한 애착 유형 분포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낯선 상황 분리 에피소드 동안 스트레스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울음에서 한국 영아들이 미국 영아들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어진 한국 영아들과 미국 영아들이 엄마와의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보이는 행동척도(근접성 추구, 접촉유지, 회피행동, 저항행동)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북 K시내에 거주하는 12-18개월 사이의 영아 85명으로, 모두 정상 분만아였으며, 모두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K국립대학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들의 양육자와,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엄마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알리는 인쇄물을 배부하였고, 이후에 전화로 다시 연락을 취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지급되었으며, 녹화된 낯선 상황실험 테이프가 제공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중류층 가정이었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29세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모든 어머니가 고등학교졸업 이상이었고, 81% 이상이 전문대졸업 이상이었다.

한국 영아들과의 비교군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Austin에 거주하는 12-18개월 사이의 영아들로, 이들에 대한 자료는 텍사스 주립대학의 Dr. Jacobvitz와 Dr. Hazen의 Partners & Parents Project의 종단연구로부터 얻어졌다. Partners & Parents Project는 1994년에 연구대상이 모여져, 태아기부터 아동기까지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관한 7년간의 종단연구이다. 원래는 125쌍이었으나, 113명이 낯선 상황 실험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 모집을 위해 TV를 통한 광고와 유아용품 가게에 진단지가 배부되었다. 연구 참여를 위해 150불과 부모-아동 상호작용을 녹화한 테이프 그리고 연구 자료에 대한 신문이 배부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중류층 가정으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26세였고, 60% 이상이 학사학위 혹은 대학원 졸업 이상이었으며, 30% 이상이 전문대 졸업 혹은 전문 직업학교 졸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85%)은 코카시안이었으며, 8% 히스

패닉, 3% 아프리카-아메리칸, 4%가 다른 인종들로 구성되었다. 연구 대상의 소득수준으로 인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 빈곤층에 속하는 9쌍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2. 측정도구

#### 1) 낯선 상황실험

유아의 애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insworth가 고안한 낯선 상황실험 절차가 이용되었다. 낯선 상황실험은 세 개의 분리 에피소드와 두 개의 재결합 에피소드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진 도구이다. 구체적으로, 8개 에피소드는 처음 연구자가 엄마와 유아에게 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낯선이와 함께하는 두 개의 분리 에피소드와 유아 혼자 방에 남겨지는 한 개의 분리 에피소드, 두 개의 재결합 에피소드로 구성되어진다.

이 도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이의 애착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가정 하에, 두 개의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보여지는 유아의 애착과 관련된 7점 척도인 네 가지 행동(근접성 추구, 접촉 유지, 회피행동, 저항행동) 척도를 기준으로 안정 애착, 불안정-회피, 불안정-저항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어진다. 네 가지 애착행동에 근거해 애착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애착유형으로 나뉘며, 네 가지 척도에서 보이는 특성들에 따라 세부적으로 8개의 애착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회피 정도에 따라 회피유형은 A1, A2로 나뉘며 안정 애착유형은 전형적인 안정 애착 유형은 B3, 낮은 근접성 추구하고 접촉 유지를 보이는 B1과 B2, 경미한 정도의 저항 행동을 보이는 B4유형으로 나뉜다. 또한 저항의 수동성 여부에 따라 C1과 C2로 나뉜다.

비조직화(disorganized)된 애착유형은 Main과

Solomon에 의하여 최근에 새로이 분류되어진 애착유형으로, 9점 척도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어지는 유형이다. 구체적인 예로, 1)강한 애착행동과 함께 회피나 저항 행동과 같은 상반된 행동을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에 보인다거나 2) 유아의 방향성이 없거나 잘못된 움직임 3)스트레오 타입 혹은 이상한 자세나 행동 4)순간적인 얼어붙는 듯한 행동이나 정지 자세 5) 부모를 향한 두려움 6)직접적인 비조직화된 행동들이 비조직화의 관련된 지표들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네 가지 애착행동들이 영아-엄마간 재결합 에피소드에서만 평가 되어지는 것과 달리 영아가 엄마와 함께 있는 모든 에피소드(1, 2, 3, 5, 8)에서 평가되어진다. 9점 척도에서 5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비조직화 유형이 주 유형(primary classification)이 되는지가 결정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절차와 관련하여 비교문화 관점에서 연구를 위해 표준화된 절차를 따랐다. 분리 에피소드와 관련하여 아이의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분리시간을 줄였다. 구체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경미한 정도의 계속적인 울음의 경우는 1분이 지난 후 종료하였고, 정도가 심한 울음의 경우는 30초 후에 종료하였다. 표준화 절차의 검증을 위해 예비연구 테이프가 미국 Minnesota대학에 보내져,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지 논의되었다. 낯선 상황 절차 전 과정이 비디오로 녹화되었으며, 애착유형 분류는 낯선상황실험 절차 분류를 위한 워크숍을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수하고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한 본 논문의 제 1저자와 워크숍을 담당하는 Dr. Carlson에 의하여 수행 되어졌다. 두 평정자 사이의 일치도는  $k=.93$ ,  $p=.00$  였다. 불일치를 보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간 논의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였다.

## 2) 영아 스트레스

두 문화권에서 영아의 스트레스를 비교하기 위해 낯선 상황 세 개의 분리 에피소드 동안 각각 영아의 스트레스가 측정되었다. 영아의 스트레스 평가는 영아가 에피소드 동안 우는지 아닌지 여부로 측정되어졌다. 스트레스 평가 지표로 울음이 선택된 이유는 울음이 분리 에피소드를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척도가 연속 변인으로 측정되지 않은 이유는 분리 에피소드가 표준화된 절차에 기반을 두어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그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평정시, 에피소드 7에 있어서, 에피소드 6의 연속선상에서 울음을 보일 때는, 낯선이에 의해 즉각적으로 달라지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그룹으로 코딩되어졌다. 두 명의 평정자에 의해 낯선 상황에 참여한 모든 영아들이 코딩되어졌고, 어떤 평정자에게도 애착 유형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었다. 두 평정자 사이의 일치도는  $k=.89$ ,  $p=.00$  였다. 불일치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간 논의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였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아들의 애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비교하였고, 한국 영아들과 미국 영아들의 애착관련 행동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이 이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영아들과 미국 영아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교차 분석이 이용되었고, 그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애착유형분포

낮선 상황절차를 통해 얻어진 한국 영아 애착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유형(ABC) 분포에 있어서, 한국 영아들은 1% 회피유형, 78% 안정애착, 21%의 저항애착 유형을 보였다. 한편, 한국 영아와 비교되는 미국(Austin) 영아들은 16% 회피유형, 54% 안정애착, 31%의 저항애착 유형을 보였다.

비 조직화 유형을 포함한 네 가지 유형분포에 있어서는 한국 영아들이 1% 회피유형, 72% 안정애착, 18% 저항애착, 9%의 비조직화 애착유형을 보였다. 다른 문화권의 애착 유형과 비교해 볼 때, 약 2000개의 낮선 상황절차를 이용한 연구들로부터 얻어진 글로벌 애착 유형 분포는 21% 회피유형, 65% 안정유형, 14%의 저항애착 유형이었다(Van IJzendoorn & Kroonenberg, 1988). 글로벌 분포와 비교해 볼 때, 한국 영아들의 애착 유형 분포에서는 회피 유형의 영아들이 유의미하게 적었으며, 안정애착 유형과 저항 애착유형의 분포는 다소 높았다. 또한 비조직화 애착유형에 속한 한국 유아의 분포는 북미와 유럽 연구에서 보여진 평균분포 15%보다 다소 낮았다(Lyons-Ruth & Jacobvitz, 1999). 세부애착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안정애착 유형의 상당 수(54%)

가 B1과 B2로 분류되었다.

#### 2. 낮선 상황에서 스트레스 비교

그간, 동양 문화권에서 보고된 영아애착 유형 분포에서, 저항애착 유형의 높은 분포 비율은 실험 절차와 관련한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왔다. 구체적으로, 서양 영아들과 비교해, 동양문화권의 영아들이 영유아기 동안 분리 상황과 관련하여 적은 경험을 하고, 이것이 절차상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Sagi & Lewkowicz, 1987). 이러한 논증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분리에피소드 동안 영아의 울음 여부가 비교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분포상 회피유형에 속하는 한국 영아가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한국 영아들과 미국영아들에 있어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 영아들이 어떻게 다른지가 코딩되어졌다. 구체적으로 한국 안정 애착 유아들과 미국 안정애착 유아들이 비교되었고, 한국 저항 애착 유아들과 미국 저항애착 유아들이 비교되었다.

<표 2>는 분리 에피소드 동안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미국 영아들과( $N=53$ ), 한국 영아들( $N=66$ )을 대상으로 울음을 보였던 영아의 수를 나타낸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분리 에피소드동안 더 적은 한국 안정애착 영아들이 울음을 보였다( $\chi^2(1, N=119)=6.11, p<.05$ ). 그러나 두 번째와 세

<표 1> 영아 애착 유형의 분포들

	회피애착			안정애착				저항애착	
	A1	A2	B1	B2	B3	B4	C1	C2	
USA Austin	7 (7%)	9 (9%)	12 (12%)	13 (13%)	16 (15%)	15 (14%)	20 (19%)	12 (12%)	
한국 대구	1 (1%)	0 (0%)	22 (26%)	24 (28%)	8 (9%)	12 (14%)	16 (19%)	2 (2%)	

<표 2> 분리 에피소드동안 울음을 보였던 안정애착과 저항애착 영아들의 수

	안 정 애 착								
	첫 번째 분리 (낮선이와)			두 번째 분리 (혼자)			세 번째 분리 (낮선이와)		
	미국 (n=53)	한국 (n=66)	$\chi^2$	미국 (n=53)	한국 (n=66)	$\chi^2$	미국 (n=53)	한국 (n=66)	$\chi^2$
울 음	15 (28%)	7 (11%)	6.11*	37 (70%)	56 (85%)	3.89*	19 (36%)	40 (61%)	7.21**
안울음	38 (72%)	59 (89%)		16 (30%)	10 (15%)		34 (64%)	26 (39%)	

\* $p<.05$  \*\* $p<.01$

번째 분리 에피소드에서는 보다 많은 한국 안정 애착 영아들이 울음을 보였다( $\chi^2(1, N=119)=3.89, p<.05$ ), ( $\chi^2(1, N=119)=7.21, p<.01$ ).

다음으로 저항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미국 영아들(N=32)과 한국 영아들이(N=18) 비교되었다. 분석결과 이전 두 분리 에피소드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세 번째 분리 에피소드에서는 보다 많은 한국 저항 애착 영아들이 울음을 보였다( $\chi^2(1, N=50)=5.25, p<.05$ ).

### 3. 애착 관련 행동

다음으로 한국 영아와 미국 영아들이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보이는 애착관련 행동들을 비교하였다. <표 4>는 네 개의 행동척도-근접성 추구, 접촉 유지, 회피, 저항 행동)과 관련하여 한국 안정 애

착 유형의 영아들과 미국 안정애착 영아들 간의 비교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한국 영아들이 첫 번째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근접성 추구( $t(120)=-6.54, p<.001$ )와 접촉 유지( $t(69)=-4.09, p<.001$ ), 저항 행동( $t(62)=-5.66, p<.001$ ) 점수에서 낮았다. 또한 두 번째 재결합 에피소드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영아들이 근접성 추구( $t(120)=-4.48, p<.001$ )와 저항행동( $t(92)=-4.89, p<.001$ ) 점수에서 낮았다. 그러나 접촉 유지 행동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저항애착 영아들은 다른 결과를 보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재결합 에피소드에서는 한국 영아들이 근접성 추구( $t(48)=-3.23, p<.01$ )와 저항 행동( $t(48)=-2.52, p<.05$ ) 점수에서 낮았다. 그러나 두 번째 재결합 에피소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분리 에피소드동안 울음을 보였던 저항애착 영아들의 수

	저 항 애 착								
	첫 번째 분리 (낮선이와)			두 번째 분리 (혼자)			세 번째 분리 (낮선이와)		
	미국 (n=32)	한국 (n=18)	$\chi^2$	미국 (n=32)	한국 (n=18)	$\chi^2$	미국 (n=32)	한국 (n=18)	$\chi^2$
울 음	12 (37%)	10 (56%)	1.52	31 (97%)	18 (100%)	.57	21 (66%)	17 (94%)	5.25*
안울음	20 (63%)	8 (44%)		1 (3%)	0 (0%)		11 (34%)	1 (6%)	

\* $p<.05$

〈표 4〉 안정애착 영아들의 애착관련 행동

	첫 번째 재결합					두 번째 재결합				
	American (n=56)		Korean (n=66)		t	American (n=56)		Korean (n=66)		t
	M	SD	M	SD		M	SD	M	SD	
근접성 추구	4.13	1.78	2.17	1.53	-6.54***	4.84	1.62	3.48	1.70	-4.48***
접촉 유지	2.52	1.75	1.49	.73	-4.09***	3.43	1.76	2.83	1.59	-1.96
회피 행동	2.90	3.19	2.42	1.01	-1.07	1.66	.98	1.71	.97	.29
저항 행동	1.85	1.03	1.05	.27	-5.66***	2.29	1.22	1.36	.80	-4.89***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저항애착 영아들의 애착관련 행동

	첫 번째 재결합					두 번째 재결합				
	American (n=32)		Korean (n=18)		t	American (n=32)		Korean (n=18)		t
	M	SD	M	SD		M	SD	M	SD	
근접성 추구	5.14	1.51	3.56	1.92	-3.23**	5.28	1.33	5.17	1.38	-.29
접촉 유지	4.05	1.93	3.06	2.13	-1.68	5.19	1.76	5.72	1.13	1.16
회피 행동	1.97	1.48	1.92	.97	-.15	1.55	1.16	1.36	.64	-.63
저항 행동	3.53	1.40	2.33	1.94	-2.52*	4.81	.99	5.33	.84	1.88

\* $p < .05$  \*\* $p < .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아들의 애착 유형 분포를 알아보고, 애착 유형 별로 영아들의 애착관련 행동들과 스트레스 정도에 있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안정애착 분포에 있어서는, 한국 영아의 78%가 안정애착으로 분류되어 글로벌 분포인 65%와 비교되어질 때 다소 높은 분포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안정애착으로 분류되어진 한국 영아들은 다소 다른 행동을 보였고, 이는 세부 애착 유형에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영아들이 낮은 근접성 추구하고 접촉 유지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안정 애착의 상당수가 B1과 B2로 분

류되어졌다. 한국 영아들의 높은 비율이 B1, B2로 분류되어진 것은 낮은 상황 실험 동안 보여진 한국 엄마들의 행동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 엄마들과 한국 엄마들에게 같은 지시사항이 전달되었음에도, 재결합 에피소드 당시 한국 엄마들은, 아이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기다림 없이 즉각적으로 다가갔다. 또한 아이가 충분히 달래졌음에도 불구하고, 재결합 에피소드 동안 아이 옆에 앉아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 영아들 또한 적극적인 근접성의 추구보다는 재결합 당시 엄마를 향해 시선을 준 이후, 놀이동안 엄마가 있음을 확인하는 행동들을 보였다. 또한 엄마에게 상호작용을 주도하기보다는 엄마의 상호작용을 받아들이는 형태의 행동 패턴들을



보였다

한편, 회피유형 분포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서양문화권과 비교해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1%의 글로벌 분포와 비교해 1% 영아만이 회피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다른 동양 문화권에서 보여진 연구결과와 같았다. 일본 Sapporo 샘플은 0%의 회피유형을 보였고(Takahashi, 1986), 인도네시아 샘플의 경우 7%의 회피유형을 보고하였다(Zevalkink et al., 1999).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서양문화권과 비교하여 아동양육에 있어 어머니와 아동간 상호의존성이나 관계성을 강조하는 양육방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회피유형과 관련 있는 것으로 설명해 왔다. Ainsworth(1978)에 따르면, 양육자와 회피애착 유형을 형성한 영아들의 엄마들은 아이의 욕구나 스트레스에 대해 반응을 해주지 않는 상호작용 패턴을 보였다. Ainsworth의 논의에 견주어 볼 때, 양육에 있어 어머니와 아동간의 관계성(relatedness) 혹은 하나 됨(oneness)과 같은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권에서는 아동의 욕구나 스트레스를 무시(ignore)하는 상호작용의 패턴은 거의 드물 것이다. 이러한 분포의 특성은 한국 영아들의 경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전 연구들의 논의를 뒷받침한다. Kim과 Choi(1994)는 한국 양육태도에 있어 엄마들이 아이가 오랜 시간 울도록 두는 경우가 드물고 아이의 수유욕구에 있어서도 제한을 가하는 것이 드물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경우에도 같은 양육태도를 보고하였고, 또한 비슷한 잠자리 환경(같은 방에서 자는)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졌다(Takahashi, 1986; Zevalkink et al., 1999).

다음으로 저항 애착 분포 비율에서는 글로벌 분포(1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영아들의 분포보다는 낮은 비율

의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 연구(21%; Nakagawa, Lamb, & Miyaki, 1992)에서 보여준 분포와는 비슷한 분포비율을 보였다. 이는 동양 문화권의 영아들이 낮은 상황에서 더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높은 비율의 저항애착 유형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견해와 대비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영아들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분리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피소드 6과 7에서 안정애착으로 분류되어진 많은 한국 영아들이 울었었다. 그러나 울음을 보인 영아의 수에 있어서는 한국 영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에피소드 6과 7에서 울음을 보였던 61%의 영아가 안정애착으로 분류되어졌다. 이는 저항애착으로 분류되어질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은 아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저항애착으로 마지막으로 비조직화 유형 분포 비율에 있어서는 글로벌 분포(15%) 보다 다소 낮기는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해 볼 때, 표준화된 낮은 상황 절차를 이용 시, 한국 영아들의 애착유형 분포는 글로벌 애착 유형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분리 에피소드를 줄이는 판단 근거로 스트레스 정도 평정의 한 지표인 울음에 있어서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낮은 비율의 회피유형 분포는 이전 연구에서 논의되어졌던 것과 같이 양육태도나 가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대상이 수집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어진 한국 영아들이 다른 문화권의 영아들과 심리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탐색이 요구되어지며, 스트레스 정도 비교를 위해서는 울음 이외의 다른 스트레스 지표들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스트

레스 정도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수집된 연구와, 본 연구 대상에 대한 계속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나유미(1996).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응임(1994).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환(1993).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효순(1985).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미자(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경희 대학교 박사 논문.
- Ainsworth, M. D. S.(1967). *Infancy in Uganda : Infant care and the growth of love*.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 Erlbaum.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 Vol. I : Attachment*. NY : Basic Books.
- Carlson, E. A., & Sroufe, L. A.(1993). Reliability in attachment classification. *Newsletter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12.
- De Wolf, M. S., & Van IJzendoorn, M. H.(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 571-591.
- Durrett, M. E., Otaki, M., & Richards, P.(1984). Attachment and the mother's perception of support from the fa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7, 167-176.
- Grossmann, K., Grossmann, K. E., Spangler, G., Suess, G., & Unzner, L.(1985). Maternal sensitivity and newborns' orientation responses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in Northern Germany.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233-256.
- Jacobvitz, D., Hazen, N., Curran, M., & Hitchens, K. (2004). Observations of early triadic family interactions : Boundary disturbances in the family predict depressive, anxious, and ADHD symptoms in middle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577-592.
- Kim, U., & Choi, S. H.(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 A Korean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 R. R. Coc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pp. 227-257) Hillsdale, NJ : Erlbaum.
- Lamb, M. E., Thomson, R. A., Gardner, W., & Chamov, E. L.(1985). *Infant-mother attachment : The origins and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trange Situation behavior*. Hillsdale, NJ : Erlbaum.
- Lyons-Ruth, K., & Jacobvitz, D.(1999). Attachment disorganization : Unresolved loss, relational violence, and lapses in behavioral and attentional strategies.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524-554). New York : Guilford.
- Main, M.(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attachment organization : Recent studies. changing methodologies, and the concept of conditional strategies. *Human Development*, 33, 48-61.
- Main, M., & Solomon, J.(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 in preschool rears :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pp. 121-160).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yake, K., Chen, S. J., & Campos, J. J.(1985). Infant temperament, mother's mode of interaction, and attachment in Japan : An interim repor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276-297.
- Nakagawa, M., Lamb, M., & Miyaki, K.(1992). Antecedents and correlates of the strange situation behavior of Japanese Infa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3, 300-310.
- Rothbaum, F., & Kakinuma, M.(2004). Amae and attachment : Security in cultural context. *Human Development*, 47, 34-39.
- Sagi, A., & Lewkowicz, K. S.(1987). A cross-cultural evaluation of attachment research. In L. W. C. Tavecchio & M. H. Van IJzendoorn(Eds.), *Attachment in Social Networks*, 427-459.
- Sagi, A., Lamb, M. E., Lewkowicz, K. S., Shoham, R., Dvir, R., & Estes, D.(1985). Security of Infant-mother, -father, and -metapelet attachments among kibbutz-reared Israeli childre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257-275.
- Schuengel, C., Van IJzendoorn, M., Bakermans-Kranenberg, M., & Blom, M.(1998). Frightening, frightened and/or dissociated behavior, unresolved loss, and infant disorganization.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16, 277-283.
- Simpson, J. A.(1999). Attachment theory in modern evolutionary perspective.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115-140). New York : Guilford.
- Stroufe, L. A.(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 Stroufe, L. A., & Waters, E.(1977).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 Takahashi, K.(1986). Examining the strange-situation procedure with Japanese mothers and 12-month-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265-270.
- Thompson, R. A., & Lamb, M. E.(1984). Assessing qualitative dimensions of emotional responsiveness in infants : Separation reaction in the Strange Situation.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7, 423-445.
- U. S. Census Bureau.(1990). Median household income of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Income Statistics Branch*, Washington, D. C.
- Van IJzendoorn, M. H., Goldberg, S., Kroonenberg, P. M., & Frenkel, O.(1992). The relative effects of maternal and child problems on the quality of attachment : A meta-analysis of attachment in clinical samples. *Child Development*, 63, 840-858.
- Van IJzendoorn, M. H., & Kroonenberg, P. M.(1988). Cross-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 A meta-analysis of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59, 147-156.
- Van IJzendoorn, M. H., & Sagi, A.(1999). Cross-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 Universal and Contextual Dimensions.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713-734). New York : Guilford.
- Waters, E., Vaughn, B. E., & Egeland, B. R.(1980).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relationships at age one : Antecedents in neonatal behavior in an urb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 sample. *Child Development*, 51, 208-216.
- Zeanah C. H., & Barton M.(1989). Introduction : Internal Representations and Parent-Infant Relationship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0, 135-141.
- Zevalkink, J., Riksen-Walraven, J. M., & Van Lieshout, C. F. M.(1999). Attachment in the Indonesian Caregiving Context. *Social Development*, 8(1), 21-40.

---

2005년 8월 22일 투고 : 2005년 11월 22일 채택